
가치 있는 고통이었나?:

중미의 내전과 민주주의

리카르도 사엔스 데 데하다

과테말라 사회인류학자

과테말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undacion Friedrich Ebert)

프로그램 운영자이자 대학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에델베르토 토레스 리바스(Edelberto Torres Rivas)는 「중미, 혁명적 변화 없는 혁명」이라는 제목의 1997년 논문에서 1970년대와 1980년대 중미에서 전개된 대중 운동 및 투쟁 경향, 그 후에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에서 내전으로 치달았던 경향을 검토했다. 토레스 리바스에 따르면, 니카라과의 경우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FSLN: Frente Sandinista de Liberación Nacional)이 1990년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그리고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의 경우 각각 1992년과 1996년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을 때 혁명의 시대는 끝났다고 한다.

토레스 리바스는 1997년의 글에서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지속되었으며, 새로운 상황의 궁극적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묻고, 다음과 같이 답했다.

일반적으로 군부에 대한 평판이 나빠지고, 병력도 니카라과 15%, 엘살바도르 50%, 과테말라 33%가 감축되었다. 앞 두 나라인 니카라과와 엘살바도르에

서 과두 세력, 즉 지주들은 냉혹한 개혁을 맞보았고, 라틴아메리카가 앞서 경험했듯, 정치적 사망 상태에 놓여 있다. 현재는 민주주의의 발전, 자유선거, 정당 간 경쟁, 시민사회의 활성화라는 중요한 과정이 전개되고 있다. [...] 근년의 위기로부터 탄생한 정부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는 부르주아 앞에서 훨씬 더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재정위기, 즉 공공 부문의 곤궁함은 평화 구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시장 경쟁에서 승자는 금융가와 투기 자본 소유주이며 [...] 현재는 더 많은 빈민이 존재하고 불편과 불안이 보편화되었다. 민주주의 기반은 허약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일말의 낙관론도 존재하는데, 왜냐하면 중미 4개국에 사상 처음으로 독재도 없고 권위주의도 없는 평화 시대를 사는 세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마도 미약하나마 희망을 키워주는 새로운 경험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길한 의문 하나가 이러한 우리 꿈을 위협하는데, 이는 기여라는 것은 항상 고통과 희생을 수반하는 것이었고, 그 형태는 기존 질서에 맞서는 게릴라였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30만 구의 시신, 100만 명의 난민, 10만 명의 고아가 생겨났는데, 과연 가치 있는 고통이었는가?(Torres Rivas 1997)

15년이 지난 지금, 중미의 정치 과노라마는 바뀌었다. 니카라과에서는 다니엘 오르테가 사령관이 이끄는 FSLN이 정권을 되찾았고, 엘살바도르에서는 파라분도 마르티 민족해방전선(FMLN: Frente Farabundo Martí para la Liberación Nacional)이 동맹을 결성하여 2009년에 대권을 장악했으며, 과테말라에서는 1980년대에 게릴라 소탕 작전을 지휘하던 장군이 2011년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¹⁾ 이러한 맥락에서 토레스 리바스는 500여 쪽에 달하는 『혁명적 변화 없는 혁명. 중미 위

1) 오토 페레스 몰리나(Otto Pérez Molina) 현 과테말라 대통령을 가리킨다 — 옮긴이.

기에 대한 고찰』을 출판하고, 중미 혁명의 시기를 재검토하고 이론적·정치적·개인적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해석을 통해 최근 몇 년 동안 머리에서 떠나지 않던 ‘불길한 의문’, 즉 ‘과연 가치 있는 고통이었나?’에 대한 대답을 찾고자 한다.

1. 이론적 접근, 국가로부터 출발하는 사회사

비록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내전을 주제로 다루는 많은 양의 학술 서적, 논문, 증언이 존재하고 있다고는 하나 중미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최근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하다. 이들 대부분이 정치적 시각에서 내전의 주체와 행동 그리고 내전의 형성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다.

토레스 리바스는 『혁명적 변화 없는 혁명. 중미 위기에 대한 고찰』에서 국가에 대한 분석을 중심에 두는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토레스 리바스가 ‘국가중심적’이라고 부르는 이 접근은 통치 문제와 정치 문제의 방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치와 행정 구조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국가를 폭넓게 정의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 계급이 만들어지는 곳은 바로 정부 내부이며, 계급 간의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정치가들은 정부를 둘러싸고 상호작용하고, 나름의 입지를 형성하며, 서로 대립한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정부와 사회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실현하기 위해 토레스 리바스는 사회학과 역사학 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논의하는데, 그 목적은 사회사적 관점을 제안하려는 것이다. 사회사적 관점은 “현재 상황에 대한 직접적 관찰과 과거에 대한 간접적 증거의 산물이라는 상이한 두 가지 관점을 결합시킬 수 있다. [...] 그럴듯한 가설은, 역사는 오늘날까지 여전히 지속되는 성공과 실패의 모든 기억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Torres Rivas 2011, 16).

국가 유형, 특히 통치 형태는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사람과 문제 삼는 사람 간의 다툼에서 결정된다. 갈등을 해소하는 형태로서의 폭력은 그 같은 모순의 산물이다. 정치적 위기와 폭력을 수반한 봉기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도저히 정치적 삶을 조율할 수 없는 과두 정부의 무능력 혹은 불가능”에서 정당성을 찾는다(Torres Rivas 2011, 15). 중미 4개국에서 봉기는 이러한 정부에 대한 저항에서 발생했다.

반군이라는 문제에 맞닥뜨린 국가의 형태를 이해하기 위해 토레스 리바스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성격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 중미 각국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한다. 여느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토레스 리바스도 이들 국가에는 사회 깊숙이 스며 있는 ‘식민지’ 핵심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주민이 모든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가장 낮은 종속계급이 되는 사회적 인종의 위계 관계 형성이 바로 그것이다. 경제적으로 원주민은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했는데, 처음에는 노예였다가 다음에는 공물을 바치거나 강제 노역자가 되었다. 이런 상황은 20세기에도 유지되었고, 오늘날에는 대다수가 사회로부터 배제된 인구 집단으로 변했다. 정치적 측면에서 원주민은 절대적 배제 대상이었다가 제한적인 시민으로 차차 변화하였고 오늘날에는 다행히도 그 이상으로 발전하였지만, 여전히 제도적 설계와 정치 문화는 이들의 참여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고 시민으로서도 급이 다른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인종적 관계는 원주민 인구 비율이 높은 과테말라에서 가장 뚜렷하게 지속되고 있는데, 니카라과도 예외일 수 없으며 엘살바도르의 경우 이와 같은 현상이 1932년 원주민 학살을 이해하는 핵심 요인이 되기도 한다(Ching, López Bernal, y Tilley 2011).

중미 국가들의 정권 형태를 정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틀은 과두제적 성격이다. 사실 과두제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도 문제가 없지는 않는데, 특히 오늘날 학문적 영역이나 대중적인 논쟁에서 혼동을 야기하고 있다. 이미 수십 년째 이 용

어와 씨름하고 있는 토레스 리바스도 용어의 모호함을 알고 있지만 각국의 과두제 특성을 밝히고 확인하는 작업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 첫째는 과두제 핵심 세력의 외래적 특징인데, 처음에는 스페인인이었고 나중에는 다른 유럽 국가에서 건너온 이민자였다. 메스티소를 일부 받아들였다고는 해도, 자기들끼리 혼인을 맺어 견고한 친인척망을 형성하고, 여타 다른 인종과 구분을 유지하였다. 둘째는 자본보다는 오히려 토지 그리고 그 토지에 얽매인 농민과 관계를 맺는다는 점이다.²⁾ 이와 관련하여 토레스 리바스는 “과두 세력은 부르주아도 아니고 봉건 영주도 아니다. 이러한 모호성이 계급이나 권력보다 더 많은 것을 설명해준다”고 말한다. 19세기 말경 이러한 유형의 과두 세력이 중미 각국의 권력자가 되었고, 그들은 자유주의로(비록 경제적·정치적 자유의 보편성은 부인했지만) 정의하던 이데올로기의 담지자였고, 질서와 진보, 위계적인 사회와 같은 실증주의적인 요소를 통합한 이데올로기의 담지자이기도 했다.³⁾

한편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의 과두 지배는 공유지와 교회에 대한 착취, 커피 생산의 독점, 자본주의적 성격이 극히 미약한 강제노동에 토대를 두고 있었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력 동원은 필수적이었다. 군대는 이러한 경제적·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근본적인 요인이자 주체였다. 토레스 리바스는 앞서 언급한 저서에서 서로 상이한 성격을 갖지만 결국 당당한 과두적 성격의 ‘에토스’를 수호하고 재생산해내는 군사력에 기반하여 자유주의로 귀결되고 이후 정치적 권

2) 토레스 리바스에 따르면 “과두 정권 그리고 그 정권이 창출하고 또 의존하는 지배 구조는 토지 소유 그리고 그 결과로서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들에 대한 통제 형태에 기원을 두고 있다. 생산력의 발전 수준이 낮고 투자 자본이 빈약할 경우, 생산 관계 확립에서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은 토지 그리고 그 토지의 생산 가능성에 대한 통제다. 코스타리카를 제외한 중미 커피 농장(hacienda)에서 형성되고 있는 그 같은 비자본주의적인 관계는 [...] 강제로 동원된 직접 생산자(농민)가 후진적이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가 아니라 정반대로 이러한 후진성과 생산 관계가 바로 생산력 발전과 토지 소유 구조에서 초래된 결과다”(Torres-Rivas 1987, 32).

3) 마호니는 19세기 말 중미 엘리트들의 실증주의적 자유주의를 분석하고 있다(Mahoney 2001).

위를 남용하다가 1960년대와 1970년대 민중의 저항에 부딪히는 중미 각국 정부의 특성을 분석한다(Torres Rivas 2011, 54).

1930년대의 세계 경제 위기는 과두 세력의 지배를 약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강화시켜서 과테말라에서는 호르헤 우비코(Jorge Ubico) 장군의 독재 정권(1930~1944)이 들어서고 엘살바도르에서는 막시밀리아노 에르난데스(Maximiliano Hernández)의 독재정권(1932~1944)이 수립되었으며, 니카라과에서는 권력을 장악한 소모사(Somoza) 왕조가 1979년까지 정권을 유지하게 되었다. 대공황을 지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고, 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민주화 분위기가 고조됨으로써 중미 각국에서는 정치적 변화의 가능성이 생겨났다.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의 독재자는 어쩔 수 없이 퇴진하고, 과두 질서도 치명상은 아니었다고 해도 많은 상처를 입었으나 소멸되지는 않았다.⁴⁾ 니카라과에서는, 토레스 리바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부뿐 아니라 일국의 경제 대부분을 통제하고, 군대를 국가 방위가 아닌 자기 가문을 위해 존속시키는 소모사 일가의 ‘술탄 왕조’가 탄생했다.

4) 토레스 리바스에게 과두 정치는 사회적 특권 및 정치 통제 양식을 포함한다. “첫째는 토지 임대 그리고 노동력의 예속화 같은 농업 재화의 기생적 재생산이 지주들에게 그들의 경제적 가능성을 증가하는 과도한 권력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앞서 언급한 바의 결과로서, 그 같은 특권은 오직 정치적으로 표출될 수 있거나 표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계급으로서의 과두 세력은 가장 정치적이었고, 본질적으로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그들의 통제 체계가 정부의 토대에 자리하고 있었다. 투표가 감시하에 이루어져서 그나마 선거를 치러도 이류 수준의 선거였던 데다 지역적·혈연적 기원을 가진 편파적인 분파를 형성했고, 조악한 형태의 정권으로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합리화하는 방식 등이 그것이었다.”(Torres Rivas 1987, 33).

2. 갈등에 대한 정치적 해석

중미의 경제 성장기(1945~1973)는 생산 다변화, 중간층의 확대, 민주화 의지 등을 기반으로 사회의 근대화에 일정 정도 기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질서는 변화에 저항하면서 끈질기고도 심각한 정치 위기를 불러왔다. 이것이 토레스 리바스 책의 핵심이다. 원래 1982년에 발표되어 중미 갈등에 대한 가장 명쾌한 해석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글에서⁵⁾ 토레스 리바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정치적] 상부 구조의 지체를 [경제적] 토대에서 발생한 지체의 다소 복잡한 반영으로 설명하는 통속 마르크시즘의 관점과는 반대로 우리는 [...] 중미의 모든 지배 체제에서 어떻게 그리고 왜 현재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으며, 혁명적 위기로 치달았던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항상 계급 지배의 제도적 정점에 있는 정권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났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 모든 것은 경제적 토대의 움직임에서 비롯되는 ‘반영’ 이상의 그 무엇인데, 설령 그 같은 모순적 움직임이 우리가 의도하는 설명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어떤 것이 고유의 역학 속에서 다른 어떤 것을 매개로 자신을 드러낸다는 의미에서의 반영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경제 구조는 정치적 사건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결과이기도 하다(Torres Rivas 1987, 20).

정치 영역에서는 정권 역시 일차적인 수준이기는 하지만 또 하나의 주체가 되는데 그 같은 정치 영역이 토레스 리바스의 분석 대상이며, 그 사실로 인해 위기

5) 이 글은 『중미, 민주주의의 가능성』에 「두 가지 위기의 이론」이라는 표제로 수록되었으나 원래는 「과두제의 패배, 부르주아 위기, 민중혁명. 중미 두 가지 위기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Torres Rivas 1982).

의 심화, 즉 위기가 정치적·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고 또 그러한 갈등이 군사적인 방법으로 해소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가는 과정의 역학이 설명된다.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에서 군부 체제를 전복시킨 운동과 니카라과 보수 청년단의 활동은 과두 세력이 정치 무대에서 부분적으로나마 물러나도록 만들었다. 1940년대와 1950년대에 걸쳐 전개된 그 같은 투쟁의 주역은 도시 중간층, 즉 대학생, 전문가, 젊은 군인, 도시의 중·소부르주아, 구체제에 문제를 제기한 정당 지도자들이었다(Torres Rivas 1987, 28).

이러한 최초의 반독재 투쟁은 코스타리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미 어느 나라에서도 민주주의를 공고화하지 못했지만 옛 질서를 복원시킬 여지를 남기지도 않았다. 정치적 영역에서 약화된 과두 세력은 커피 수출의 확대,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이라는 여건을 이용해 경제적인 영역으로 세력을 확장했는데, 무역, 금융업, 서비스업, 제조업, 그리고 기존의 커피가 아닌 다른 농업 부문, 즉 면화, 설탕, 목축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중미 각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부르주아가 탄생하는 것을 막았고, 대신 과두 세력의 '에토스'가 경제 활동의 모든 영역으로 깊숙이 침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정권의 통제 아래에 놓인 군부는 정치적 개방을 이끌어낼 수도 없었고(지배 그룹의 비토 때문에), 중간층의 정치적 움직임을 억누를 수도 없었으며, 의사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근대화시키지도 못했다. 군대와 과두 세력 간의 애증 관계에서 군대는 이미 유통 기한이 지나버린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과두 세력의 도구로 변질됐다.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의 군부가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방책은 일부 저자들이 언급한 '허울뿐인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 안에는 정당, 야당의 국회의원, 선거의 승자가 있었지만 각본에 의해 연출된 것일 뿐이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중미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변화의 시기였다. 주지

하듯이 쿠바의 혁명 성공과 사회주의 노선 채택으로 라틴아메리카는 냉전의 논리가 침예하게 대답하는 무대로 변화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군부와 과두 세력의 갈등에 영향을 미쳤다. 폐쇄적인 정치를 고수하며 민주화 요구를 억압하려는 군부의 완고한 태도는 변화를 요구하는 중간층을 급진화시켰다. 중간층은 군부가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쿠바 '7·26 운동'의 성과를 통해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러한 위협 앞에서 군부와 과두 세력은 동맹을 맺기에 이르렀고, 게다가 그 동맹에 대해 중미에 또 다른 쿠바가 등장하는 사태를 피하고 싶었던 미국 정부의 찬사까지 쏟아졌다.

중간층의 급진화는 도시뿐 아니라 농촌 지역에서도 격렬한 민중운동으로 이어졌다. 농촌 지역에서는 새로운 작물 및 가축의 도입과 더불어 커피 재배의 확대가 사회적 격변을 야기했는데, 대농장과 농민이 공생 관계를 유지해오던 지역에서 더욱 심하였다. 생산 양식이 노동력 전체를 연중 흡수해낼 수 없었으므로, 토지를 빼앗긴 농민은 엄격한 의미의 프롤레타리아가 된 것이 아니라 농촌 빈민이 되었는데, 가톨릭교회, 농민 연맹, 위원회, 노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을 통해 급진적인 도시 부문에 합류했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특히 석유 가격의 폭등은 그 지역 내에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였다. 그 같은 상황은 공공 부문의 노동자는 물론 사기업 노동자에게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고, 1970년대 전반에 걸쳐 확산되었던 일련의 저항을 불러오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대한 정부 측의 대응은 또다시 폐쇄 정치였다.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중미 3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모두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변화를 이뤄낼 가능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에서는 선거 부정이 있었고, 이로써 폭넓은 대중적 지지를 등에 업은 후보자인 호세 나폴레옹 두아르테(José Napoleón Duarte)와 호세 에프라인 리오스 몬트(José Efraín Ríos

Montt)의 대통령 당선을 막았다.⁶⁾ 부정 선거와 탄압은 진보 진영 활동가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니카라과에서는 상호 합의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소모사 일족이 여전히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사회적 저항, 폐쇄 정치, 경제위기로 빚어진 갈등을 해결하는 데 군부가 개입하였다. 폭력이 사회적 행동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사회 전반을 장악했다. 토레스 리바스는 책에서 위기의 발생과 관련된 미국의 책임은 물론이고 내전의 주역이었던 활동가, 이데올로기, 영향력을 발휘하던 믿음과 이상, 가톨릭교회의 역할 등이 어떤 면모를 띠어갔는지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3. 승리와 패배에 대한 개인적 시각

문학이든 과학이든 무릇 모든 노작은 저자의 자전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고 특징화된다. 원자료를 활용하고 또 원자료와 대화를 거치지만 주제 선택에서부터 이야기 전개에 이르기까지 개인적 경험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혁명적 변화 없는 혁명』의 경우, 토레스 리바스는 첫 쪽부터 분명한 태도를 취한다. “이 책은 만년에 들어와 중미에 대해 쓴 글이다. 붕기와 실패로 점철된 격동과 고통의 중미,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한 역사를 거처온 중미에서 발생한 사건의 연대기다. 우리는 아직도 그 일을 성취하지 못했다”(Torres Rivas 2011, 2).

토레스 리바스는 보다 정의로운 중미 사회를 위해 투쟁해온 사람들과 함께 했다. 그는 하코보 아르벤스 구스만(Jacobo Arbenz Guzmán) 과테말라 대통령 임

6) 역설적이게도 1980년대 초 대통령직에 오른 엘살바도르의 두아르테와 과테말라의 리오스 몬트는 반군 진압 정책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기 말에 민주대학생전선(FUD: Frente Universitario Democrático)⁷⁾의 지도자로 일했다. 그러나 정치 여정의 상당 기간 동안 민주 사회 건설의 가능성이 좌절되는 것을 지켜보았고, 사회정의의 위한 투쟁의 외중에 두 세대에 걸쳐 정치사회단체 지도자와 군인들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1970년대 초기에는 중미대학연합 최고위원회(CSUCA: Consejo Superior Universitario Centroamericano)에서 중미 사회과학 프로그램 감독관으로 일했고, 그 이후에는 라틴아메리카 사회과학원(FLACSO: Facultad Latinoamericana de Ciencias Sociales) 원장으로서 코스타리카에서 중미 국가 출신의 망명자와 친분을 맺었는데, 이들을 통해 중미에서 발생한 피리린내 나는 참상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⁸⁾ 여기서 최근의 역사에 대한 그의 관점이 형성되었고, 사회과학에서는 어쩔 수 없이 취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 성향, 즉 현실에 눈을 감기보다는 연구자의 감정적 부분을 개입시키게 되었다.

토레스 리바스는 마지막 두 장에서 내전에 관해, 즉 봉기한 사람은 누구였고, 어떤 전술을 취했으며, 그들이 맞섰던 국가 유형은 어떤 것이었고, 그 도전에 대한 반응은 무엇이었는지에 관해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과감한 시도에 나선다. 지역적 분석과 비교 분석도 간과하지 않았는데, 각국에서 투쟁한 세력의 특성과 전쟁의 결과는 제각각이었다.

니카라과 사례에 대해서는 당시 산디니스타(Sandinista) 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불러일으켰던 공감과 기대로 접근해간다. 잔혹하고 약탈적인 소모사 일족의 독재에 맞서, 산디니스타에서 보수 기업가까지 포괄하는 진정한 의미의 다계급 동맹이 결성되었는데, 그 동맹은 소모사 일당의 타도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니카라과 건설도 주장했다.

7) 1952년 아르벤스 대통령과 농지 개혁을 지지하기 위해 결성된 대학생 운동단체 — 옮긴이.

8) 토레스 리바스의 정치적, 학문적 여정은 바타이온(Bataillon 2006) 참고.

니카라과 혁명을 중식시키겠다는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미 대통령의 결정과, 소모사 독재를 타도한 이후 광범위한 동맹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산디니스타가 보여준 속수무책 혹은 무능함은 국가를 게릴라전 상태로 몰아넣었는데, 미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상당 부분 주도한 콘트라반군과의 전쟁은 반소모사 투쟁보다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갔고 혁명정부 지지 기반에 균열을 야기했다.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FSLN)은 1984년 니카라과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선거를 실시했으며, 1990년에는 패배를 인정하고 상대 진영에 정권을 넘겨주었다. 전쟁으로 가난해진 나라지만 민주화는 그 같은 혁명의 유산이었다.

엘살바도르 사례를 위해 토레스 리마스는 솔하게 많은 연구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검토했고, 이를 통해 엘살바도르 민중의 지난한 투쟁사를 끄집어낼 수 있었다. 민중의 형성, 정치를 통한 방법의 고갈, 1979년 10월의 중대한 시점과 1981년 초 게릴라 조직의 마지막 공격 결정(물론 마지막이지는 않았지만) 등이다. 그 같은 사태는 내전이 계속될 1980년대의 개막을 알렸고, 이 내전에서 과라반도 마르티 민족해방전선(FMLN)은 엘살바도르 군대에만 맞선 것이 아니라 미국과도 맞서야 했는데, 당시 미국은 중미에서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마지막 노선을 그어둔 상태였다. 그것은 폴리앗 앞의 다윗을 넘어서, 차라리 황제 앞의 엄지동자였다. 토레스 리마스는 FMLN의 정치적·군사적 능력에 대한 자신의 감탄을 굳이 숨기지 않는다. FMLN는 지리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도 그리고 엄청난 보수주의의 풍랑 속에서도 엘살바도르 정부를 궁지로 몰아넣는 데 성공했고, 내전이 수도 산살바도르까지 확대되면서 정치적 출구 전략 협상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수년 후 FMLN은 대권을 차지할 수 있었다.

엘살바도르 내전의 결과는 역설적이었다. 즉 엘살바도르 과두 세력은 전쟁에 의해, 특히 미국 정부의 원조를 받아 국가의 경제 및 정치 구조를 변화시켜놓은 개혁을 추동한 시민-군대 연합의 결정으로 무너졌다. 전통적 과두 세력이 사라

짐으로써 부르주아의 입지가 강화되었는데, 그 부르주아는 엘살바도르 경제 모델 변화를 주도한 것은 물론, 1989년부터 2009년까지 20년간 통치했던 민족공화동맹(ARENA: Alianza Republicana Nacionalista)을 구성하기도 했다. FMLN이 폭력이 아니라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권력을 쟁취했을 때, 엘살바도르는 경제적으로 완전한 폐허 상태였다. 국민의 약 20%는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고, 화폐도 없어 적절한 통화 정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폭력이 난무하고 있었다.

과테말라의 사례에 대한 토레스 리바스의 접근은 한층 더 복잡하다. 과테말라의 경우에는 정보가 과도하게 넘쳐났다. 토레스 리바스는 멀리서 또 가까이서 과테말라의 최근 역사를 지켜보았고, 과거사규명위원회(CEH: Comisión para el Esclarecimiento Histórico)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과거사규명위원회의 방대한 보고서를 모은 12권의 책에는 군대가 과테말라 민중에게 자행한 야만적인 행위가 서술되어 있는데, 그 속에는 마야 원주민 학살 행위도 포함되어 있었다. 토레스 리바스는 봉기 전략의 미비를 책망하고, 봉기하기로 결정한 민중을 적절한 순간에 무장시키지 못한 무능함에 문제를 제기하며, 군대의 공격이 있자 게릴라 부대를 후퇴시켜 지지 기반을 무방비 상태로 만든 일을 비판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군대가 수십 개의 원주민 공동체를 상대로 자행한 학살과 관련해서는 반군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토레스 리바스는 과테말라 봉기에 대한 분석보다는 비판에 더 비중을 두는데, 봉기는 30여 년이나 전투 상황을 지속할 능력이 있었고, 사회주의 진영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었으며, 가장 잔혹한 진압 작전에 저항해낼 수 있었지만, 중요한 평화 의제를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적들에게 결정적인 방식의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과두 세력과 군대는 그러한 내전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과거 게릴라 단체는 정당으로 변신했지만 엘살바도르의 FMLN과는 달리 선거에서

결다리 역할을 할 뿐이었다

토레스 리바스의 과테말라 사례 설명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군사 작전의 중·장기 결과들이었다.

원주민에 대한 초토화 정책은 정부의 속성, 즉 식민 시대에 기원을 둔 뿌리 깊은 인종주의적 속성을 말해준다. 정부뿐만이 아니라 과테말라 사회도 인종주의적이며, 내전 기간 내내 자행된 원주민 학살은 다름이 아니라 학살의 속성이 정복, 식민, 공화국 시대까지 이어진 결과였을 뿐이다. 학살이라는 속성은 원주민 '반란' 앞에서 군대와 시민이 재생산해낸 공포와 증오를 혼합시킨 역사의 결과물이었다. 그들은 비무장 농민들을 상대로 한 공격에서 물고기로 부터 물을 빼앗아버리면 말려 죽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물고기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물을 빼는 순간 그들은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가학이라는 비열한 행위를 자행한 것이었다(Torres Rivas 2011, 459).

과테말라 내전의 전개와 사회적·정치적 갈등은 1980년대 전반기 동안 자행된 학살 행위에 의해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내전의 여파는 아직도 과테말라의 정치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미 3개국의 갈등 전개를 분석하기 위한 토레스 리바스의 논리는 분명하다. 토레스 리바스는 패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혁명을 성공할 수 없었던 역사적 불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애초부터 다음과 같이 규정된 혁명 사상에서 출발했기 때문이었다.

승리를 위한 그리고 정부와 사회에 근본적 변화를 불러오기 위한 사회운동

이며, 운동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제 분위기 속에서 과업을 완수한다. 혁명적인 운동과 그렇지 않은 운동의 구분이 중요한데, 혁명적인 운동이냐 아니냐를 결정해주는 요소는 바로 운동의 목표 및 수단, 즉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중봉기로 정부를 접수(장악, 혁파, 변혁)하는 일, 이데올로기로 규정된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과 같은 것이다. 순수한 상태의 혁명 운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순수와 비순수 사이 어디쯤에서 움직일 뿐, 그 질을 말해주는 것은 바로 승리다(Torres Rivas 2011, 17).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전이라는 갈등으로부터 중미 3개국의 사회와 정부에 중요한 변화가 생겨나왔다. 군부가 시민 권력에 예속된 것을 시발로 민주화에 이르고, 시민사회의 요구에 정부가 더 큰 관심을 기울이며 과두 세력이 사라지는 과정을 거치는 그 같은 변화는 우리가 살펴본 갈등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오늘날의 중미는 다른 모습이 되었다.

4. 가치 있는 고통이었나?

『혁명적 변화 없는 혁명』의 에필로그는 우리가 살펴본 중미 3개국의 평화 과정을 분석하는 데 할애되어 있다. 선거가 평화 교섭의 산물이었던 다른 지역의 경험과는 달리, 중미에서 선거다운 선거가 이루어진 때는 1980년대 중반부터였다. 이로써 중미 3개국의 정치에 변화와 특징이 나타났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뒤엎은 게릴라도 있었고, 전쟁을 통한 민주화의 쟁취도 있었고,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와 같이 무장 해제와 갈등의 해소를 넘어서는 평화 협상을 통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이 오늘날 중미 지역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냈다. 토레스 리바스는 이를 ‘나쁜 민주주의’라 부르는데(Torres Rivas 2010), 이러한 것들이 바로 『혁명적 변화 없는 혁명』에서 설명하고 검토한 갈등의 결과물이었다. ‘과연 가치 있는 고통이었나?’라는 질문에 대한 결산과 대답은 독자에게 달려 있을 것이다. 현재의 위치에서 과거를 향해 시선을 던진다는 토레스 리바스의 분석적 제안을 재차 적용해본다면, 중미 사회는 커다란 도전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토레스 리바스가 책에서 검토한 기간과 비교해본다면 중미 사회는 단순히 변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토레스 리바스가 희망하듯, 보다 덜 부정한 사회로 변모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_ 강성식 옮김

원제와 출처

Ricardo Sáenz de Tejada. 2012.

“¿Valió la pena?: guerras civiles y democracia en Centroamérica.”

Nueva Sociedad 240: 149-162.

참고문헌

- Bataillon, Gilles. 2006. "Edelberto Torres Rivas: entrevista con el hijo de un exiliado nicaragüense en Guatemala." *Istor* 24: 102-121.
- Ching, Erik Kristofer, Carlos Gregorio López Bernal, y Virginia Tilley. 2011. *Las masas, la matanza y el martirato en El Salvador*. San Salvador: UCA.
- Mahoney, James. 2001. *The Legacies of Liberalism: Path Dependence and Political Regimes in Central America*.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Torres Rivas, Edelberto. 1982. "Derrota oligárquica, crisis burguesa y revolución popular. Sobre las dos crisis en Centroamérica." *El Trimestre Económico* 200.
- Torres Rivas, Edelberto. 1987. *Centroamérica, la democracia posible*. San José de Costa Rica: Educa/Flasco.
- Torres Rivas, Edelberto. 1997. "Centroamérica, revoluciones sin cambio revolucionario." *Nueva Sociedad* 150: 7-8. www.nuso.org/upload/articulos/2612_1.pdf
- Torres Rivas, Edelberto. 2010. "Las democracias malas en Centroamérica." *Nueva Sociedad* 226: 52-66. www.nuso.org/upload/articulos/3684_1.pdf
- Torres Rivas, Edelberto. 2011. *Revoluciones sin cambios revolucionarios. Ensayos sobre la crisis en Centroamérica*. Guatemala: F&G Editores.